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앙교육 : Zacharias Ursinus와 Caspar Olevianus를 중심으로

Reformed Church Education of Reformed Orthodox : Focused on Zacharias Ursinus and Caspar Olevianus

이 현 철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I. 서론 : "After Calvin"에 대한 관심 | 266
II.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 대한 이해 | 268
1.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생애 | 268
2.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학적 특징 | 271
III.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 강조, 교육대상,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 276
1.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 | 276
2.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대상 | 279
3.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교육방법 | 282
IV. 결론 : 한국 교회교육에 주는 함의 | 286

Abstract

Reformed Church Education of Reformed Orthodox : Focused on Zacharias Ursinus and Caspar Olevianus

Lee, Hyun-chul (Kosi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reformed church education of reformed orthodox, especially focus on Zacharias Ursinus (1534~1583) and Caspar Olevianus (1536~1587), and examines its implication in relation to the church education of Korean Church. With regard to this issue, I intend in this paper to demonstrate and understand, by analyzing the life, theological views, and activities of Zacharias Ursinus and Caspar Olevianus, unique faith and spirit of the orthodox era. In order to achieve the ke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nalyzing the activities of Ursinus and Olevianus for the reformed church education that characteristically portrayed through Heidelberg Catechism, I mainly analyzed Ursinus and Olevianus' emphasize on the church/faith education, diversity of member in church community, and distinctive educational methods (teaching methods). Results of this study were to increase the interest and will enrich the discussion in orthodox era.

Furthermore, it will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trategy of the Church Educational System in Korea.

Key words | Zacharias Ursinus, Caspar Olevianus, reformed church education, reformed orthodox, Heidelberg Catechism

I. 서론 : “After Calvin”에 대한 관심

정련된 신앙교육의 부재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신앙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세속화의 도전 앞에서 단호하게 응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신앙세대의 유의미한 전수와 양육을 상실하게 되어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걸어간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신앙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전술한 침체의 모습과 패턴을 인정하거나 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며,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여기고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함이 분명하다.

종교개혁 및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 역사에서 구성된 주요한 신앙고백서들과 교리적 사항들의 의미는 개혁신학과 개혁주의 전통이 교육과 신앙 전수에 있어 얼마나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졌는가를 강력하게 반증하여 준다. 또한 작금의 파편화되고 협소해진 신앙교육이 아닌 오직 성경을 통한 고백적인 신앙교육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종교개혁시대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한 이해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방대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며, 지금도 ‘마르지 않는 보고(寶庫)’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져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욱더 천착(穿鑿)하여 당시의 신앙과 정신을 교육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일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연구과제와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칼빈과 종교개혁 이후 200년 동안의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역사신학적, 조직신학적, 기독교교육을 포함하는 실천신학적인 관심이다. 그동안 우리는 짧은 40~50년의 역사적 시간을 가진 종교개혁 운동과 활동에 보낸 찬사와 열광에 비하여 그보다 훨씬 길었던 정통주의 시대에 대하여서는 그에 준하는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1] 이와 관련하여 최근 Richard A. Muller(2003, 2012)의 논의와 연구는 주목할 만하며 의미를 가질 수 있다.[2] Muller를 중심으로 소위 "After Calvin"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학계의 해당 시대에 속한 다양한 인물들의 생애와 신학적 이해는 여전히 그 양적인 수준에 있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들의 신학과 핵심적인 개념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기 위하여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있어 신앙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살펴본 이유는 그들이 대표적인 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기독교 교리의 모범문서로서의 가장 탁월한 자리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해 작성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

---

1) 한병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서론』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21.

2) Muller, 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Muller, R.,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물론 이러한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교리사가들 사이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16세기와 17세기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들의 생애와 신학적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대상,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통한 접근은 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학문접근 및 담론 형성과 한국교회 내 교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 대한 이해

본 절에서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생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며, 그들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었던 언약사상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특징과 개혁주의 신학자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생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는 1534년 7월 18일 실레지아의 수도 브레슬라우(Breslau)에서 평범한 계층에 속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우르시누스의 학문적 재능을 발견하고 16세가 되던 해에 당시 멜랑히톤이 후원하고 있던 명망 높았던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으로 보내어져 공부를 하였다. 그곳에서 멜랑히톤으로부터 1550~1557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비텐베르크 대학과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3] 1577년부터 그는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스트라스부르

크(Strassburg), 바젤(Basel), 로잔(Lausanne), 제네바(Geneve) 등에서 개혁주의자들과 활발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칼빈, 부처, 불링거, 피터 마터 버미글리 등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4]

이후 1558년 9월 브레슬라우 당국으로부터 엘리자베스 김나지움(the Elizabeth Gymnasium)교수 자리로 초빙(1558년 9월)을 받게 되었으며,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신학과 학문적 활동에 있어 의미 있는 사역을 수행 하였다.[5] 이 시기에 특별히 그는 칼빈주의적인 성만찬 교리를 주장함으로서 많은 반대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스스로가 교수직을 떠나야겠음을 결단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후 그는 1560년 10월 3일 쮜리히(Zurich)로 옮겨 피터 마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를 통해 학문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더욱 견고히 개혁주의자로서의 학문적 성향을 공공이 하였다.[6]

한편, 당시의 시대 상황적으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ederick III, 1551~1607)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그는 다른 진영(루터파)에 있는 학자들보다 개혁주의 학자들에 대한 수용과 선호가 컸다.[7]

이러한 맥락에서 1961년 피터 마터 버미글리는 우르시누스를 하이델베르크

---

3) Bierma, Lyle. D.,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 Reformation Synth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 9-10.

4) 이권형,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우르시누스의 삼위일체론"(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진서, "우르시누스 신학에 있어서 '성자와 중보자 사이의 구별'에 대한 이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 나타난 신학적 이해"(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12.

5) Bierma, Lyle. D.,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 Reformation Synthesis*, 10.

6) 자카르시스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원광연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6), 17-19.

7) 프레드리히 3세는 네덜란드 귀족 헨리 브레데로데(Henry of Brederode)의 미망인 마리아(Maria of Brandenburg-Bayreuth)와 1537년 결혼하였으며, 그녀를 통해서 칼빈주의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후 프레드리히의 주도적인 행보 속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하이델베르크로 모이게 된다.

대학교의 교수로 추천하였으며,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그를 하이델베르크의 교수로 초빙하였다. 교수로 초빙된 우르시누스는 이듬해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1563년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였다.[8)]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는 1536년 8월 10일 모젤 강가의 도시 트리에르(Trier)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제빵사였다. 그는 13살 때에 대학에 진학하고, 1552년 경 16세에 파리에 가서 고전어를 포함한 인문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계속하여서 오를레앙과 부르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1557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네바와 쮜리히에 가서 칼빈과 불링거의 지도 아래 신학을 연구하였다.[9)] 실제로 올레비아누스는 피터 마르티르에게서 배웠고, 로잔에서는 베자에게서,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서 강의를 들었던 인물이었다.

신학 수업 후에 그는 칼빈과 파렐의 권유로 1559년 고향 트리에르에 돌아가서 작은 학교의 라틴어 교사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올레비아누스는 단순히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강력한 설교도 수행하였는데, 그의 복음적 설교-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는 대주교이던 요한 폰 더 레이언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됨으로 얼마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올레비아누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와 몇몇 다른 이들은 막후교섭을 통하여 올레비아누스를 감옥에서 빼내어 하이델베르크로 데리고 오게 되었으며, 1560년 하이델베르크에 들어오게 된다. 그 후 올레비아누스는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으로 온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자신의 강좌를 넘겨주게 된다.[10)] 카스

---

8) Bierma, Lyle. D.,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 Reformation Synthesis,* 11.
9) http://www.meetingpoint.org/jc/jc_eng/jcolev.htm 2015년 3월 30일 검색
10) http://www.prca.org/books/portraits/ursinus.htm 2015년 4월 1일 검색

파르 올레비아누스는 종교개혁 후 인물로서 독일에서의 개혁교회 형성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난 150년간 인정을 받아왔고, 또 당대의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로 간주되어 왔다.[11)]

2.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학적 특징

다양한 관점과 평가를 통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르시누스는 신학자, 올레비아누스는 설교자로 간주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은 칼빈 이후의 개혁 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학적 특징과 사항에 대하여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단순히 우르시누스는 신학자이며 올레비아누스는 설교자이다와 같은 단편적인 구분을 거부하는 것이며, 좀 더 심층적인 이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여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논의와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히 올레비아누스에 대한 신학적 특징을 논의하는 것은 전술한 맥락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우르시누스는 그의 생애에서 멜랑히톤의 초기 영향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의 신학적 특징에도 멜랑히톤이 주요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르시누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1550~1557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멜랑히톤(1497~1560)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멜랑히톤은 루터와 깊이 교제하면서 루터의 신학을 변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별히 멜랑히톤은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을 도왔으며 루터를 대신하여 루터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루터를 대신하여 아우구스부르크

11) 이상규,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발간사”.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1-2.

제국회의(1530)에 참석하여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신학통론』(Loci Communes Theologici)을 통해 루터파의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12)

그러므로 우르시누스의 신학적 기초와 특징에 멜랑히톤을 통한 루터파의 영향이 강하게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실제 그와 같은 특징이 우르시누스의 신학적 체제 속에서 확인이 된다.13) 하지만 1560년 멜랑히톤의 죽음과 개혁주의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개혁신학을 확고하게 정립하게 된다. 물론 그 이전부터 우르시누스의 개혁신학적 입장과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의 생애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엘리자베스 김나지움에서의 활동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양하게 그의 신학적인 특징14)을 살펴볼 수 있으나 특별히 개혁신학의

---

12) 이성호, "칼빈과 멜랑흐톤(*Philip Melanchthon*)",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2), 56-7.

13) 이금석, "제네바와 하이델베르크의 신앙교육서 비교연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5.

14) 우르시누스의 신학 작품들과 관련하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원장 이신열)은 의미 있는 고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바로 우르시누스의 전집이다. 개혁주의학술원 황대우 교수에 따르면 이 전집은 1612년 출판으로 출판 장소는 하이델베르크, 출판사는 요한 란켈로투스(Johannis Lancellotus)이다. 이 고서의 제목은 "이미 하이델베르크와 노이슈타트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가르친, 매우 신실한 박사요 교수이며,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 자카리아 우르시누스 목사의 신학 작품집.(D[omini]. Zachariae Ursini theologi celeberimi, Sacrarum literarum olim in Academia Heidelbergensi & Neustadiana Doctoris & Professoris fidelisimi, opera theologica.)이다. 그리고 이 책은 우르시누스의 제자로서 신학 박사요 교수인 퀴리누스 로이테루스(Quirinus Reuterus)에 의해 3권으로 편집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1권은 교리교육서(Catechism. 혹은 교리문답서)를 비롯한 신학 주제를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권은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에 대한 변증과 여러 논쟁서들, 교회 문제를 다룬 논문들, 그리고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권은 다양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짧은 해설과 중요한 신학 주제들에 대한 짧은 해설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야서 1-21장 주석도 상당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와 연관된 몇 편의 편지와 우르시누스의 아주 짧은 글들이 첨부되어 있다. http://www.kirs.kr/?document_srl=899, 고신대학교 개

입장에서 우르시누스의 신학은 언약론을 중심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해서도 그의 신학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의 독특한 신학적 특징은 바로 언약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르시누스는 신학의 4가지 구성요소인 율법, 복음, 기도, 교회사역을 언약과 연결하였으며,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언약을 매개로 하여 구성하였다.[15] 우르시누스는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께 화목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십계명의 사항들도 강조하였다. 우르시누스에 있어 복음 역시 언약을 알려주는 요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복음안에서 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복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우르시누스는 언약과 기도도 연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회사역도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음을 설명한다.[16] 이러한 신학의 중요 요소들을 언약을 매개하여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르시누스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츠빙글리, 불링거, 칼빈에게 있어서 언약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어도 우르시누스처럼 신학의 전 분야에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언약을 매개로 하여 신학을 체계화하지도 않았다.[17] 이러한 사항은 우르시누스의 신학적 특징이

혁주의학술원. 2015년 4월 2일 검색.

15)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2) 120. 이후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학과 관련한 논의는 이남규의 논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6) 우르시누스의 다양한 신학주제들과 언약의 독특한 체계에 대해서는 이남규(2012)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라며,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과의 관련성의 경우 Bierma, Lyle. D., “Ursinus and the Theological Landscap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Arnold Huijgen(ed.). *The Spiritualit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Paper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eidelberg Catechism Held in Apeldoorn 2013.* (pp.9-23) (CT: Vadenhoeck & Ruprecht,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17)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117.

며, 그의 언약론의 의의로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를 통해 더욱 확장되며 체계적인 내용과 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올레비아누스는 우르시누스와 마찬가지로 언약에 근거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함으로 자신의 신학적 특징을 구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언약에 대한 집중과 관심은 칼빈과 그 동시대의 개혁사상을 물려받은 당대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이고 유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18] 그러나 올레비아누스는 언약과 관련한 강조와 집중을 그가 작업한 몇몇 저작들 속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우선 올레비아누스는 1585년에 출간한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 사이의 언약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이 언약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들에 대하여'(De substantia foederis inter Deum et elsctos, itemque de mediis, quibus ea ipsa substantia nobis communicatur)를 출간하였다. 그는 저작의 핵심적인 사항을 언약에 집중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과 언약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20] 물론 올레비아누스는 1585년에 출간한 '하나님과 선택받은 자들 사이의 언약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이 언약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들에 대하여'가 출간되기 전인 1576년에도 언약에 대한 그의 집중을 확인할 수는 자료가 확인 된다. 올레비아누스는 1576년 '사도신경해설'(Expositio Symboli Apostolici)을 출간하면서 해당 책의 표지에서 이 책의 목적과 의미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기술해주고 있는데 그는 해당 저작이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값없는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짧고 분명하게 다루어졌다'(...summa gratuiti foederis aeterni inter Deum et fideles breviter et perspicue tractatur)라고 밝혀줌

---

18) Andrew A. W.,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3.

19) 올레비아누스의 언약과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는 Bierma, Lyle. D., *The Covenant Theology of Caspar Olevianus*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5) 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121.

으로서[21] 그의 신학에서의 언약이 차지하는 무게감과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임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이러한 올레비아누스는 언약에 대한 의미를 전 생애를 통해서 축적시켜나갔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개념들이 그의 출간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전술하였듯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학적 특징은 언약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자들로서의 굳건한 언약적 관점을 견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르시누스는 언약을 매개로 하여 신학의 주요한 요소들을 연결시키려하였으며, 올레비아누스는 그러한 우르시누스의 시도들을 심화시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언약교리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그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8, 77, 79, 82, 84문항들에서 성례와 함께 언약사상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들의 활동과 사역은 언약사상에 대하여 초기 종교개혁자들보다 좀 더 명쾌하게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23] 그러므로 이들의 경우 언약적 개념을 좀 더 세밀하고 정련된 표현으로 구성시킴으로 언약적 맥락에서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더욱 명확하게 자리매김 시켰으며, 그것을 충실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4]

---

21)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121.
22)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127.
23) 김재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언약사상”(한국개혁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종교개혁 50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013), 37.
24) 이남규, “칼빈,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초기 개혁주의 언약론의 발전”, 129.

III.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 강조, 교육대상,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 신앙교육의 교육대상, 신앙교육의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한국교회 내 교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은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의 견고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항목이었다. 그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와 사역은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함을 통해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물론 그들의 저술과 다양한 활동들에서도 신앙교육적 의미를 확보 할 수 있겠으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함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러한 의도가 표출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되었으며, 당시 28세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교수인 우르시누스와 26세의 올레비아누스의 주도적인 활동 속에서 작성이 되었다(1563년에 출판).[25] 전술하였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작성의 핵심적인

25) 올레비아누스의 경우 궁정 설교가이기도 하였음. Beeke, J. R., 『칼빈주의』 [*Living for God's Glory: An Introduction to Calvinism*]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61; Thea B. Van Halsema,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 [*Three Men Came to Heidelberg and Glorious Heretic: The Story of Guido de Bres*]강변교회도서위원회 역. (서울: 성약, 2006), 51-71.

의미는 바로 신앙교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독일어 원문제목인 "Catechismus oder Christlicher Underricht"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히 "Catechismus" 의미 속에서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점과 그들의 집중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칼빈의 배경과 그의 해당 단어의 활용을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신앙교육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강요』에서 "강요(institutio)"라는 단어에 스스로 "Catechismus"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단어들이"교육"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Catechismus와 관련하여 칼빈의 명확한 단어 사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기독교강요가 기독교교리를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성이 담겨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강요』초판은 확실하게 "기독교교리교육서" 혹은 "기독교신앙교육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의 그러한 목적성과 의도는 1537년 "제네바 교리교육서"와 1545년 라틴어로 출판된 두 번째 "제네바 교리교육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네바교회에서 사용되는 신앙에 관한 교육(서) 및 고백(서)"와 "제네바 교회의 교리교육(서), 즉 그리스도의 교리로 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양식(문서)"로 각각의 제목들이 활용된 것이다.[26]

이러한 "Catechismus" 의미와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Catechismus oder Christlicher Underricht" 에서의 "Catechismus" 역시 칼빈과 일맥상통하게 "신앙교육"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출판 의도가 명확하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바로 신앙교육을 위해 작성되어졌으며, 그것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저작한 핵심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27]

---

26) 황대우,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Heidelberger Katechismus)』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6-7.

좀 더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작성 목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신앙교육적 의미 안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이해되어져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작성 목적은 팔츠(Pfalz)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일치된 신앙고백을 위함이었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기본진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었다.[28] 이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서문에는 이 문답서가 학교학습서로서 활용됨을 밝히고 있다.[29]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2주로 나누어 설교하도록 한 것이며,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에서 요리문답을 설교할 것으로 교회법으로 확정하기도 하였다.[30] 그러므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무엇보다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교리 내지는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을 강조하였는가를 반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교회들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담고자 했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기독교 교리의 모범문서로서의 가장 탁월한 자리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한 신앙교육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31]

---

27) 실제로 이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살리기 위하여 고신대학교의 황대우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출간 450주년을 기념하여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영어, 라틴어, 독일어, 한글번역을 대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후학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한 설교와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해 주었다.

28) 권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통한 개력부의 신앙교육" 「개혁논총」 28(2013), 225.

29) 조성국, 『하이델베르그 기독교 교리교육서(Heidelberse Kategismus)』 (부산: 고신대학교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2004), 9.

30) 유해무·김헌수,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의 역사와 신학』 (서울: 성약, 2011), 27.

31) Herman J. Selderhuis, "The Heidelberg Catechism: The Secret of Its Success," In Jon D. Payne

2.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대상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대상에 대한 의미는 신앙교육을 위한 그들의 중요한 저작이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사항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 있어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출이 되었으며,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대상을 살펴봄으로서 그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범위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프리드리히 3세의 작성배경을 살펴보면 프리드리히 3세에게 있어 주요한 관심은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통일된 신앙으로 일치하고 후대들을 신앙적으로 정련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프리드리히 3세의 핵심적인 관심은 무엇보다도 루터교 신앙과 개혁신앙의 조정을 위한 철저한 성경적인 요리문답서가 필요했던 것이며[32], 그러한 내용을 통해 학교와 교회 내에서 종교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33] 물론 당시 하이델베르크 내의 성찬문제에 의한

& Sebastian Heck(ed.). *A Faith Worth Teaching: The Heidelberg Catechism's Enduring Heritag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3) vi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신학적 구조와 의미에 대하여서는 Bierma, Lyle. D.,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A Reformation Synthesi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3)를 참조하기 바라며, 우르시누스에 집중하여 하이델베르크의 신학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Bierma, Lyle. D., "Ursinus and the Theological Landscape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Arnold Huijgen(ed.). *The Spiritualit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Paper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eidelberg Catechism Held in Apeldoorn 2013.* (pp.9-23). (CT: Vadenhoeck & Ruprecht,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32) 김영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의 신학"(한국개혁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종교개혁 50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013), 9.

33) 조성국, 『하이델베르그 기독교 교리교육서(Heidelberse Kategismus)』, 9; 박주용,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의 교회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안연구" (총신대학교 신학석학

격렬한 논쟁과 신학적 대립이 정치적인 분열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프리드리히 3세가 초기에 담아내고자 한 주요한 목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일된 신앙교육이며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전체 지역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신앙 일치를 위한 행보인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리드리히 3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 제안과 관련된 배경적 측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체적인 교육대상이 초심자들과 영유아를 포함하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전 연령을 포함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와 관련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부터 52주로 129개의 문답이 나누어 설교가 이루어졌으며,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한 주일씩 구분하여 설교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활용에는 특정한 세대와 일부의 계층 대상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며 맥락이다. 왜냐하면 개혁교회에 있어서 신앙고백(요리문답) 설교와 가르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성숙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신앙고백적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34] 그러므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활용하여 교육대상의 포괄성을 추구해 나갔다고도 볼 수 있다.

나아가 흥미로운 것은 1563년 1월 19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개혁주의 교회의 총회를 통과하자 네덜란드 교회도 이를 표준문서로 채택한 것이다. 네덜란드 교회의 표준문서 채택 후 이어서 베젤(Wessel, 1568),

---

위논문, 2013), 25.

34) Peter Y. De Jong., "Comments on Catechetical Preaching"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Oct.1,* 1985), 155.

엠덴(Emden, 1571), 도르트(Dort, 1578), 헤이그(Hague, 1586) 지역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받아들여졌고, 도르트 총회(1618-1619)에서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과 함께 3대 표준문서가 되었다.[35] 이러한 측면은 그 적용성과 활용에 대하여 의미 있는 2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당시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독교 교리의 모범문서로서의 탁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둘째는 첫 번째 의미와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개혁교회 구성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전제한 자료였음을 당대가 인식을 한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줌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의 폭넓은 교육대상의 의미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다.[36]

정리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 제안자인 프리드리히 3세의 초기 목적과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작성 방식에서부터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어 적용되어 간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교육 대상자들과 그 핵심적인 범위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는 개혁교회의 일치된 신앙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볼 수 있다. 결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고려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교육대상자들은 특정한 세대와 계층이 아닌 광범위한 이들이며, 포괄적인 대상들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

35) 주도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개혁교회 그 분명한 정신을 추구하며" (한국개혁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종교개혁 500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2013), 308; 김영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의 신학", 9

36)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내 서론 자체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적인 교육대상자들은 있으나 그 적용성과 활용도에 있어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성국, 『하이델베르그 기독교 교리교육서(Heidelberse Kategismus)』, 9

3.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교육방법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교육대상의 다양성과 포괄성은 교육방법의 실천성을 나타나게 된다. 특별히 다양한 교육대상을 고려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다루는 교육방법은 실천적 성격이 강한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일 것이다. 즉, 다양한 이들과 계층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특정한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논의와 방식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실천성이 높은 전략과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교육방법(교수-학습방법)적으로 매우 실천성이 강조된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체적인 문답식 형식과 각 문답마다 성경을 대조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답형식의 자체의 의미와 강조는 칼빈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칼빈의 문답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루터의 소교리문답서에 비하여 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문답들 간의 논리적 연결성에 두드러진 특징을 볼 수 있으며, 효율성이 있는 문답형식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실행하고자 한 그의 교육적 관심도 확인 할 수 있다.[37] 이러한 문답형식의 의미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129개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52주일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다.[38] 이러한 측면은 전형적인 문답식 형태의 내용과 교수방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7) 조성국, "칼빈의 신앙교육서들을 통해 본 기독교신앙교육". 『칼빈주의와 문화적 사명』 한명동 박사 90회 생신 기념 논문집.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0), 219-220.

38) Kevin DeYoung, 『왜 우리는 하델벨르크 교리문답을 사랑하는가』 [*The Good News We Almost forgot*] 신지철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28.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 자체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포함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논리와 명확한 교육목표를 통해서 구조화되어 교육과정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인 교수-학습 과정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답식 구성과 성경 구절 대조의 형식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래의 사항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에서 일반적으로 전개한 문답형식의 양식이며 1번째 주일의 사항을 기술하였다.

1번째 주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으로서의 답변이 제시되고 있으며, 각 답변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대조하여서 명확한 개념과 의미의 전달을

〈표 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문답식 구조의 일반적 형식: 독일어 원문과 한글 대조

[독일어 원문] I, LECTIO Der 1. Sontag	[한글 번역] 1번째 주일
1.Frag: Was ist dein einiger trost in leben vnd in streben?	1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Antwort: Das ich mit Leib vnd Seel / beyde in leben vnd in streben(1) nicht mein(2) / sonder meines getrewen Heilands Jesu Christi eigenbin(3) / der mit seinem thewren blut(4) / föur alle meine sünden volkomlich bezalet(5) / vnd mich auB allem gewalt des Teuffels erlöset hat(6) / vnd also bewaret(7) / das one den willen meins Vatters im Himmel / kein har von meinem haupt kan fallen(8) / ja auch mir alles zu meiner seligkeyt dienen muB.(9) Darumb er mich auch durch seinen heiligen Geist des ewigen lebens versuchert(10) / vnd jm forthin zu leben von hertzen willig vnd bereit macht.(11)	답변.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1) 나의 것이 아니라(2)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3)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4)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5)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6)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7) 나를 보호하십니다.(8) 그래서 만물도 또한 나를 섬기되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9)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도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10)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11)
(1) Rom.14:7-8 (2) 1.Cor.6:19 (3) 1. Cor.3:23 (4) 1.Pet.1:18 (5) 1.Ioha.1:7; 2:2 (6) 1.Ioha.3:8 (7) Ioh.6:39 (8) Matt.10:29-31; Luc.21:18 (9) Rom.8:28 (10) 2.Cor.1:20-22; Ephes.1:13-14; Rom8:16 (11) Rom 8:14	(1) 로마서 14:7-8 (2) 고린도전서 6:19 (3) 고린도전서 3:23 (4) 베드로전서 1:18-19 (5) 요한일서 1:7; 2:2 (6) 요한일서 3:8 (7)마태복음 10:29-31; 누가복음 21:18 (8) 요한복음 6:39 (9) 로마서 8:28 (10) 고린도후서 1:20-22; 에베소서 1:13-14 (11) 로마서 8:14, 16

자료출처: 황대우,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Heidelberger Katechismus)』, 11; 13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번째 주일의 질문에서 특별히 독일어 '트로스트 trost'는 '신뢰' 또는 '신실'이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확신' 또는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어[39]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문의 답변(Antwort)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관련 성경 구절들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이후의 전반적인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는 질문으로서 모든 항목의 논리적 전제가 될 수 질문과 답변인 것이다.

이러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에서 추구한 문답식 구성의 특징은 가장 보편적인/전통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문답식 체계의 구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신앙교육의 교육대상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학습단계로 이끌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40]

실제로 문답식 구성과 형식은 교수-학습과정 내에서 교육 대상자들로 하여금 지식과 개념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사실에 근거한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추론적 이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41]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대한 각 항목마다 성경을 대조하여 구성한 측면은 신앙교육의 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지식의 사실적 측면과 추론적 측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내용을 교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형식을 문답형식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성경의 대조

39) Kevin DeYoung, 『왜 우리는 하델벨르크 교리문답을 사랑하는가』, 36-37.
40) 강용원,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88-89.
41) 박정진, "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1(2006), 83.

내용을 삽입한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실천성이 매우 강조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교육대상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고려 할 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취한 교육방법적인 전략은 실천성이 강조된 당연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도홍은 아래와 같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실천적 성격의 측면을 강조하였다.[4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하 HK)의 교회와 학교에서의 실용적 활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단지 신학적 탁월성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고, 독특한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며, 복음의 곡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자에게 뿐 아니라 일반 신도들의 활용에도 HK는 유일무이하게 종교개혁 신학 위에서 유효적절하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19세기에 이르러서 HK는 가정, 학교 그리고 평민들의 생활에서 까지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 문서가 되었다.....개혁교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며 잃지 않았다.....

주도홍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학적 탁월성을 넘어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 가능한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으로서 교육대상의 다양화와 포괄성을 위하여 지성적인 측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나치게 학문적이지 않게 문답식과 성경 구절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일목요연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의 강조와 신앙교육 대상의 다양성이 그들의 교육방법 및 교수-학습방법과 전략에서 더욱 명확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다.

---

42) 주도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역사와 정신: 개혁교회 그 분명한 정신을 추구하며", 322-323.

물론 이러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교육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역시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연역적 문답 형식에 따른 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방식과 획일적인 구성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Donald Van Dyken은 이러한 요리문답 교육방법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며, 암기와 질문 그리고 복습과 반복의 가르침을 넘어서 노래로 요리문답배우기, 부모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만들기 등 계속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들을 필요함을 그의 저서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다.[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지향하였던 문답 형식의 교수-학습전략의 실천성과 적용성의 가치는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어 높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 한국 교회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교회와 학계는 아쉽게도 40~50년의 짧은 역사적 시간을 가진 종교개혁 운동과 활동에 보낸 관심에 비하여 그보다 훨씬 길었던 정통주의 시대에 대하여서는 그에 준하는 관심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칼빈과 종교개혁 이후 200년의 역사를 가진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역사신학적, 조직신학적, 기독교교육을 포함하는 실천신학적인 정련된 연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종교개혁의 결과물들을 체계화 시킨 이들의 가치를 후세대에 밝혀줌으로서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의 신앙을 더욱 공공이 해야 할 학술적 책임감을 선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43) Donald Van Dyken.,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교육』 [*Rediscovering Catechism*] 김희정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이해를 탐색하기 위하여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있어 신앙교육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살펴본 이유는 그들이 대표적인 칼빈 이후 개혁파 정통주의자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기독교 교리의 모범문서로서의 가장 탁월한 자리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해 작성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생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었던 언약사상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특징과 개혁주의 신학자로서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또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 신앙교육의 교육대상, 신앙교육의 교육방법(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담고 있는 신앙교육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의 관련성을 자연스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있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미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장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였기 때문이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에 대한 내용을 탐색함을 통해서 한국교회 내 교회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철저한 신앙교육의 강조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만을 위해 신학적 검증절차 없이 무분별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세속화된 가치 지향을 통해서 신앙교육과 통일된 신앙고백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오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항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철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담아 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할 것이다. 이것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신앙교육이 담아내고자 하였던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며,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교회의 진입장벽과 위기에 대한 이현철의 현장 연구는 교회의 신앙교육의 부재를 핵심적인 교회의 위기와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회의 구성원과 새롭게 등록하는 이들의 경우 내실 있는 신앙교육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44] 이는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리교육과 관련된 교육대상의 다양화와 교육기관을 넘어서는 전 생애적인 신앙교육의 강조가 필요하다. 현재 교회 내에서의 교리교육은 새신자반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3-4주의 프로그램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한 신앙교육 안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강조하였던 교육대상의 포괄성과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 생애적인 과정에서의 반복적·집중적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설교에서의 요리문답서 활용을 통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용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목회와 교육의 이중구조를 탈피하고, 교회 내 교육기관 만에 해당된 신앙교육적 성격을 벗어나 전 생애적/평생교육적인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 기관 및 소속에서 신앙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고령화[45]의

44) 이현철,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탐구" 「개혁논총」 33(2015), 25-26; 이현철의 경우 2014년 한국연구재단(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지향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은 첫째, 양질의 신앙교육 부재와 교회의 세속화, 둘째,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윤리·도덕적 문제, 셋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어색함, 넷째,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교회 내의 끼리끼리 문화, 다섯째, 공격적인 전도방식이 주는 강한 이미지, 여섯째, 새신자부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구성의 부족 등을 도출하였다.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시도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앙교육에 있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단선적인 교육방법,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교육과 교육방법의 과정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과 과업달성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지만 신앙교육의 특성은 실제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에 있어야 하며, 학교와 가정을 포함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신앙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신앙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46] 이를 위하여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고차원적인 사고와 실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및 학습방법과 교육과정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교육 및 교회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넷째,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 발달을 위한 연구와 관심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개혁교회에서는 언약에 기초하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책임이 일차적/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 내 교육기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현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신앙교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지며, 목회자와 교사들이 좀 더 정련된 수준에서의 신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할 체계적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외부자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 피상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접근이

45)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고령화에 대한 신앙교육과 기독교교육적인 접근은 흥미로운 주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회(회장 조성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2015년 3월 28일 안양대학교).

46) 조성국, "칼빈의 신앙교육서들을 통해 본 기독교신앙교육", 218.

아니라 '교회 현장지향적이며, 교회교육 내부자적인 관점'에 기반 한 접근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문헌연구 중심의 기독교교육을 포함하는 실천신학 전반의 연구방법과 분석접근에 대한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국적 상황과 한국교회의 맥락을 고려하는 한국적 연구고찰을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47]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과 기초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7) 해당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용원과 이현철은 다양한 연구물들을 출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용원·이현철,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연구: 전문성 저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2010), 93-119; 강용원·이현철, "성장하는 교회의 특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고신신학(고신신학회)」 11(2011년), 152-191; 이현철, "한국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개혁논총」 28(2013), 247-279; 이현철, "한국교회의 진입장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탐구"「개혁논총」 33(2015), 9-43 등등.